

10월의

육계전망



장민기
본회 부회장
버들농원대표

8월의 육계가격 폭락에 이어 9월에는 더욱 가격이 하락하여 일시적으로 400원 미만의 가격까지도 기록했고 8~9월중에는 병아리 값이 덩핑되는 가운데 병아리를 구하지 못해 여름철 육계사업을 할 수 없었던 육계사업자들이 호기를 만난듯 입추에 열을 올렸고 더구나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복중에 재미를 보지 못한 실력있는(?) 육계사업자들의 그릇된 판단(값싼 병아리로는 채산성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오판) 때문에 부화장의 병아리 생산감축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게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9월10일~9월25일까지 전라, 충청, 경기지역에 육계 생산감축을 계도코자 육계분과위원회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지도팀이 지방순회를 마치고 공동적으로 느낀점은 육계사

육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사실에 새삼놀랐고 이 불황은 우리나라 육계사상 가장 긴 불황의 늪이 될 것이라는 불안한 예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분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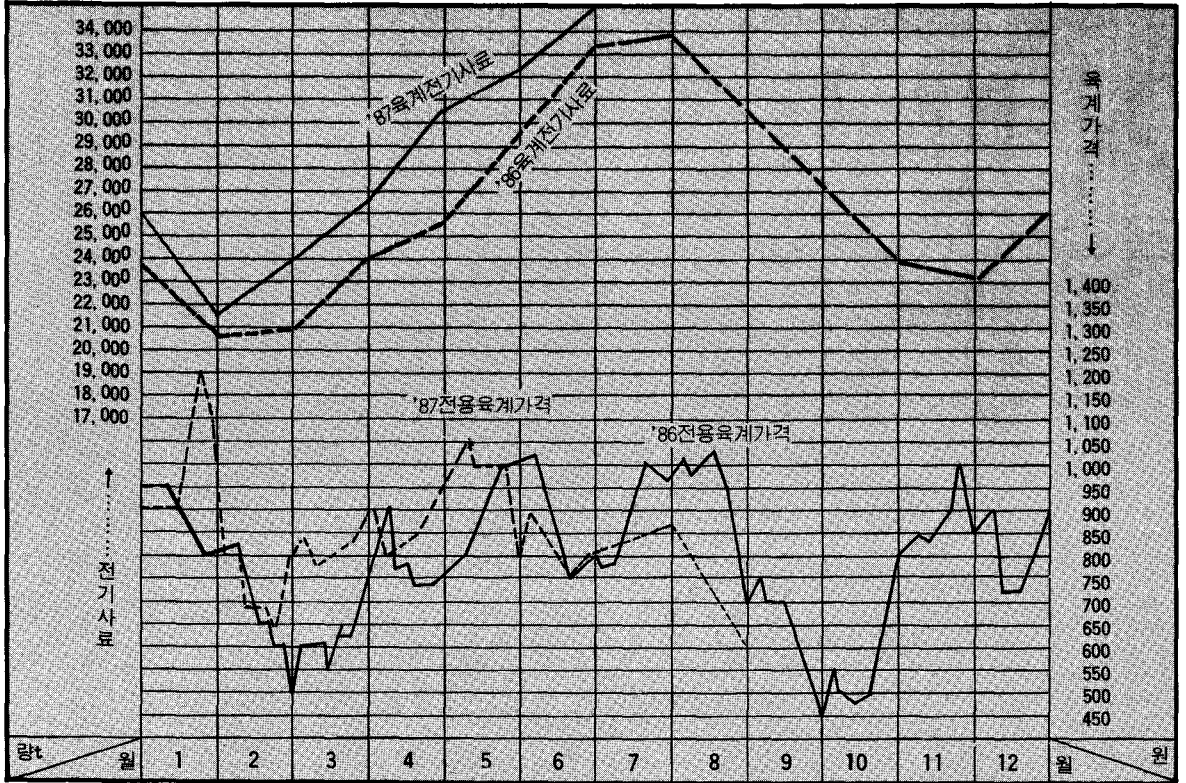
1. 지방순회중 청문에 대한 느낌과 사료생산량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금년 복중 육계사육시설 현황은 줄잡아도 월 3천만수 정도의 병아리를 기를 수 있는 시설이고 이 시설에 모두 병아리가 들어있다고 가상할 때의 육계전기사료 소요량은 월 5만톤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 8월의 육계전기사료 소모량으로 볼때 2,100만 수의 병아리가 입식되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적정입식수수 1,600만수보다 500만수나 초과되는 수치이다.
3. 9월의 육계전기사료 생산량도 주간 사료 생산실적을 토대로 추정할 때 육계전기사료는 31,000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1,940만여수의 병아리에게 먹일 육계전기사료의 양이다. 적정입식수수 1,500만수에 비하면 이 또한 440만여수나 초과생산될 조짐이다.
4. 10월의 육계병아리 생산잠재력은 강제환우에 들어갔던 종계까지를 고려한다면 1,880만수로 적정수수대비 300여만수가 초과생산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5. 11월부터는 87년초 집중 입식된 종계로부터의 병아리 생산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다. 생산잠재력은 2,000만여수에 말하고 적정입식 소요량은 1,570만수이다.
6. 결론적으로 육계전기사료 소요량으로 기준할때 사육총시설은 월 5만톤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있고, 현재는 3만여톤의 사료를 소화중에 있고 적정소요량은 2만톤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의 모든 육계사업자들이 총 사육시설의 40%만 활용하여 육계생산에 임할때 비로써 육계가격은 회복의 국면에 돌입될 것이 지명할 사실이다.

표1. 표본 10개 사료메이커의 주간 사료생산량('87)

(단위: 톤)

사료 기간	7					8				9			
	28~4	5~11	12~18	19~25	26~1	2~8	9~15	16~22	23~29	30~5	6~12	13~19	20~26
전 기	4,172	3,584	3,749	3,081	3,067	3,203	2,967	2,835	2,991	2,891	2,600	2,549	
후 기	4,236	4,719	5,433	5,321	4,925	4,837	4,769	3,671	4,636	4,794	4,669	5,008	
계	8,891	9,017	9,070	7,972	7,992	8,040	7,736	6,506	7,627	7,685	7,269	7,557	

월별 육계전기사료 생산량과 전용육계 가격의 비교



(범례 : ...'87전용육계가격, -'86전용육계가격-'87육계전기사료, '86- - 육계 전기사료)

표 2. 84~87사료 병아리 (생산수, 잠재력) 가격비교

월	년도	사료(천톤)		병아리 생산수 (천수)	병아리 생산잠재력 (천수)	가 격 (원/kg)	비 고
		전 기	후 기				
1	84	13.4	25.9	7,394	16,521	995	
	85	19.6	27.3	11,500	15,343	1,115	
	86	21.0	31.6	13,125	15,825	966	
	87	21.7	27.4	15,630	16,208	1,002	
2	84	12.9	16.5	9,356	17,551	1,134	
	85	19.8	29.7	12,000	16,009	1,050	
	86	21.1	32.8	13,188	16,853	740	
	87	23.4	31.0	14,625	17,088	726	
3	84	23.3	19.7	12,922	18,534	1,353	
	85	22.9	33.0	13,000	16,721	750	
	86	24.5	36.7	15,313	17,520	650	
	87	26.5	35.4	16,563	17,931	816	
4	84	26.7	30.2	14,060	19,158	1,048	
	85	23.6	35.4	14,500	17,059	870	
	86	26.4	38.0	16,800	18,110	800	
	87	30.3	37.9	18,938	19,003	880	
5	84	29.9	42.0	16,196	18,809	785	
	85	26.1	36.9	15,500	16,981	870	
	86	31.0	37.9	19,350	18,634	957	
	87	32.8	39.9	20,500	19,854	972	
6	84	29.0	44.6	13,022	18,124	733	
	85	28.7	38.9	16,500	16,226	870	
	86	34.2	43.7	20,625	18,453	898	
	87	40.1	50.1	25,063	20,108	816	

7	84	32.7	41.5	11,433	16,688	987	
	85	28.1	43.5	16,000	13,956	950	
	86	34.4	54.5	21,500	15,649	895	
	87	38.2	62.6	23,875	19,050	858	
8	84	20.1	28.8	11,029	14,686	1,180	
	85	25.3	34.5	14,500	13,956	1,100	
	86	30.0	47.3	19,000	15,649	908	
	87	33.6	53.0	21,000	17,962	602	
9	84	19.5	29.1	10,038	13,408	977	
	85	22.0	38.5	12,000	12,970	840	
	86	26.1	52.7	16,840	15,070	630	
	87	추32.0	추47.0	추19,373	17,612	420	
10	84	19.4	29.5	9,980	13,064	900	년말이후 가지도 계속 불황예상.
	85	20.4	35.7	11,500	12,970	714	
	86	23.6	43.2	14,750	15,121	608	
	87	추30.0	추45.0	추18,750	17,946	추400	
11	84	19.6	28.1	10,483	13,810	952	
	85	21.4	31.3	11,000	13,765	831	
	86	23.2	35.2	14,500	15,600	885	
	87	추27.0	추40.0	추16,875	17,162		
12	84	20.8	33.5	10,654	14,449	951	
	85	23.7	37.2	12,800	14,760	950	
	86	26.9	40.6	15,000	15,990	813	
	87	추30.0	추37.0	추18,750	20,337		
계	84	258.3	369.4	136,567	194,682	1,000	
	85	281.6	421.9	160,800	182,029	909	
	86	332.4	494.2	199,991	216,000		